

‘천원의 아침밥’엔 공감... 범죄 대응엔 ‘처벌’ vs ‘예방’

(興)

(野)

4·10 총선 공약 비교

복지, 의료, 치안

각 정당이 내놓는 공약 중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약은 무엇일까. 유권자들의 지갑을 지켜주는 것은 민생경제 공약이고, 유권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사회 공약이다. 이에 정당들은 앞다퉈 국민에게 병원에 갈 때 지갑 걱정을 하지 않고, 학생들이 아침을 굶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다.

〈메트로경제신문〉은 4·10 총선 6일 전인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복지, 의료, 치안 분야의 공약을 살펴봤다. 양당이 비슷한 공약을 낸 경우도 볼 수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양 정당이 다른 시각을 갖고 공약을 마련했음을 알 수 있었다.

◆興野, 한목소리로 ‘천원의 아침밥’ 확대 약속... 단가인상·대상 확대 등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복지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었다. 이는 고물가로 끼니를 걱정하는 대학생들에게 아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민건강통계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아침 식사 결식률은 31.7%이며, 에너지 소모가 가장 많은 19~29세는 53%가 아침을 거른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한정적인 운영으로 아쉬움이 나오던 차였다.

국민의힘은 대학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참여 희망 대학을 모두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원단가 2배 인상 등을 통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고 단가 인상도 공약에 넣었다.

양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경로당 주7일 점심 제공 ▲학교밖 청소년 및 가정밖 청소년 실태파악·자립 지원 확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청년자립준비학교’ 도입 ▲한부모가정육아 지원급여 인상·지급대상 확대 ▲약질적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를 정부가

여야 복지·의료·치안 공약 비교	
국민의힘	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로당·노인복지관 주7일 점심제공 확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단가 2배 인상 등 확대 학교·가정 밖 청소년 실태파악 및 자립지원 확대 대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 기숙사 확충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약질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선지급, 후추징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맞춤형 돌봄체계 확대 다문화 자녀 돌봄 지원 강화, 교육·진로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단가 인상 전국 경로당 주5일 점심밥상 제공 양육비 불이행, 감치처분 회피 목적 주조 허위 신고 제재, 양육비 지급 관련 강력한 이행정책 마련 주4.5일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연차 저축제도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체계 강화 방과후학교 무상화 추진, 방과후학교 법제화 임산부, 초등학생 맞춤형 농식품 정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운영(’25.12) 후 확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국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의료인프라 취약 지역의 지역대 신설 추진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청년·학생 정신건강검진 주기 단축 및 지원 확대 마약·알코올 등 중독치료 및 재활 인프라 확대 응급실 행방이 사망 사고 예방 비만치료제 급여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2→4개) 중증·희귀질환자 본인부담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대상 ‘주치의 제도’ 및 방문·재택진료 확대 노인대상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진단 및 회복 지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으로 간병 사각지대 해소 요양병원 임원환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지역의사제, 공공·지역대 신설, 의료인 증원 의료의 질·안전성 고려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65세 이상 임플란트 추가 지원(2개→4개) 전국민 비만 예방 관리체계 구축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부담 완화 신·변종 감염병 백신 개발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공중합박죄 신설, 공공장소 흉기소지 엄중 처벌 전세사기, 보이콧사기 등 다중피해자 범죄 가중처벌 ‘범죄수익환수기본법’ 제정 등 범죄수익 박탈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다각적 추진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등 고위험 범죄요인 관리 범죄피해자 형사소송 절차 참여 등 진술권 보장 중대범죄 피해자 ‘안심주소’ 제도 도입 ‘재난현장조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통시장 화재 예방 위한 전기시설 정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경력자 관리·감독 강화로 흉악범죄 예방 청소년 범죄에 대한 예방체계 강화 해의 위상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체계 선진화 ‘문지마 범죄(이상동기범죄)’ 예방 통계시스템 마련 공공주택에 대한 화재설비 전수 조사 및 보강 재난안전통신망 체계 강화 데이트 폭력 범죄 범죄회피 및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스토킹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및 보호 강화 직장 내 스토킹 법적 규제와 대응 매뉴얼 마련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興野 천원의아침밥 지원단가 인상 지역의대 신설·노령층 임플란트 지원

국민의힘 ‘한국형 제시카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공약

민주당 ‘문지마 범죄’ 예방 통계시스템 예방 통해 사회적 피해 줄이려는 취지

선지급·후추징 ▲다문화가족 자녀 돌봄 지원 강화 등을 공약집에 넣었다.

민주당은 ▲전국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 ▲양육비 채무자 관련 강력한 이행정책 마련 ▲주4일(4.5일) 도입 지원 ▲초등학교부터 방과후학교 단계적 무상화 추진 ▲연차휴가 저축제도 ▲임산부 전환

경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간식사업 복원·확대 등이 복지 분야 공약으로 올라와 있다.

◆양당의 ‘의료 분야’ 공통공약은?... 임플란트 추가 지원·비만 관리·지역의대 신설 등

의료분야 개혁에서 양 정당의 공통공약은 요양병원 관련 정책과 지역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노령층 임플란트 추가 지원(2개→4개), 1형당뇨 지원 확대, 전 국민 비만 관리, 중증·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있다. 지역의대 신설의 경우 의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양 당에서 모두 공약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이며, 임플란트 추가 지원의 경우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또 중증 난치성 질환인 1형당뇨 질환

자는 혈당 관리뿐 아니라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인슐린 주사, 소모성 1회용 주사바늘, 알콜솜, 혈당검사지, 채혈침 등 다양한 의료장비가 필요해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부담금만 매년 300만~400만원 이상 지출된다고 한다. 1형당뇨 질환자가 있는 가정은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양 정당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원 약속을 한 셈이다.

전 국민 비만 관리 공약도 눈에 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비만율은 37.2%라고 한다. 20대를 제외하고는 전연령이 30~40%대를 오가는 수치를 보여줬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비만 합병증 치료,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약 16조원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비만치료제 급여화, 민주당은 전 국민 비만 예방 관리체계 구축을 공약에 넣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국확대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운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혜택 400만명까지 확대 ▲지역 공공병원 육성 ▲50대 이상 대상포진 백신 접종비 지원 ▲청년·학생 정신건강검진 주기 단축, 서비스 지원 확대 ▲마약·알코올 등 중독치료 및 재활 인프라 확대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노인대상 ‘주치의 제도’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진단 및 회복 지원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구축·활용 ▲노인 대상 재택 의료서비스·통합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운영 ▲특정 질환에 대한 첨단 로봇수술 건강보험 급여화 등이 공약집에 담겨 있다.

◆한동훈 제시한 ‘한국형 제시카법’ 재등장... 野, ‘문지마 범죄’ 예방 필요성 강조

귀갓길이 무섭지 않고, 국가가 나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 이는 국가의 치안 역량에서 나온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범죄와 관련해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이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민주당은

예방에 중점을 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제시한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이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학교·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다.

한 위원장은 장관 재임 시절 ‘한국형 제시카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형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21대 국회 종료를 앞둔 상황이라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국형 제시카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문지마 범죄’(이상동기범죄) 예방 통계시스템 마련, 범죄예방특별법 제정, 흉악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경력자 관리·감독 강화 등에서 ‘예방’에 초점을 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범죄가 일어나기 전 예방을 통해, 사회적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재범고위험군 관리 강화 및 1:1 전담 등 보호관찰 인력 증원, 재소자에 대한 심리치료·교육 수준 제고, 이상동기범죄 유형화 및 통계 작성, 발생원인 분석 등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흉기 난동 등으로 시민 불안이 가중됐을 당시, 민주당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예방책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범죄자의 교화와 사회로의 복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자 대상 사기범죄 가중처벌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추진 ▲중대범죄 피해자 ‘안심주소’ 제도 도입 등을, 민주당은 ▲경찰의 현장순찰 강화·흉악범죄 적극 대응 ▲스토킹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대처·보호 강화 ▲가정폭력 현장 대응조치 강화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예진·김현정·안승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지지층 결집 위해서라면’... 興野 대표 입 거칠어져

상대방 심판대상 규정... 막말공세 한동훈 “정치 뒷같이 하는 사람들” 이재명 “2번을 찍든지, 집에서 쉬어라”

4·10 총선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여야 수장들은 상대방을 심판 대상으로 규정하며 막말 공세를 퍼부고 있다. 막바지로 접어드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선명성을 부각하면서 오히려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달 28일부터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라며 막말을 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월 11일 오후 각각 충남 홍성군 홍성시장과 고양시 라페스타 거리를 방문해 총선 예비후보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플렉스 앞 유세에서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거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성동 유세에서도 “정치를 뒷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지난달 30일 경기 부천 유세에선 “수원에서 출마한다는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말을 살펴봐 달라. 초등학교를 성관계의 대상으로 얘기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대

상으로 비유를 들었다”며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말인가. 뼈소리 나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지난 1일 부산 연제 지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 대표는 정작 그런 쓰레기 같은 욕설을 한 형수나, 정신병원에 보낸 형님한테 아무런 사과를 한 바가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한 위원장과 경쟁하듯 연일 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4일 세종 유세 현장에서 “1번을 찍지 않으면 곧 2번을 지지하는 것”이라며 “살만하다” 싶다면 2번을 찍든지 집에서 쉬어라”고 했다.

해당 발언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비하했다는 논란을 불러왔다. 2번을 찍는 유권자는 투표장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는 반응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재혼가정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가나 정부가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아야 하는데 지금은 의붓 아버지 같다.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고, 계모 같다. 팔쥐 엄마 같다”고 말했다.

/서예진·박태홍기자